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 마련된 양궁 경기장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결승이 열린 사대에서 연습에 참가해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 남녀 양궁·'셔틀콕 퀸' 안세영 '金 예약'

한국, 금9·은4·동13 '종합10위'...그레이스노트, 파리 올림픽 국가별 메달 전망

펜싱 남자사브르·여자 에페 단체전도 금메달 후보
배드민턴 여복·수영 황선우·태권도 이다빈 銀 예약

27일 개막을 앞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9개를 따내 종합 순위 10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노트가 22일 발표한 올해 파리 올림픽 국가별 메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9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해 금메달 수 기준 종합 순위 10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달 전인 6월 말 전망치였던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6개와 비

교하면 금메달 수는 1개 늘었고, 전체 메달 수는 29개에서 26개로 줄었다.

이는 대한체육회의 금메달 5개 정도에 종합 순위 15위 목표보다 좋은 수치다.

또 이날 오전 미국의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내놓은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전망과 비교해도 긍정적인 예상이다.

그레이스노트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양궁 남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을 휩쓸어 금메달 3개를 획득하고,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도 시상대 맨 위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펜싱 남자 사브르와 여자 에페 단체전도 금메달 후보로 주목됐으며 스포츠클라이밍 이도현과 태권도 서진우, 역도 박해정이 금메달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다.

은메달은 배드민턴 여자 복식 이소희-백하나 조와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황선우, 태권도 이다빈, 역도 김수현이 따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메달 후보로는 양궁 남자 개인전 김우진,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강민혁 조,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송세라와 여자 사브르 단체전, 체조 남자 마루은등 류성현, 유도 김민중, 허미미, 이준환과 근대5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 수영 남자 계영 800m, 탁구 혼합복식 임종훈-신유빈 조와 남자 단체전, 태권도 박태준이 지목됐다.

메달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는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과 여자 골프 고



배드민턴 안세영 /연합뉴스

진영 등은 그레이스노트의 메달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전체 메달 순위 예상치를 보면 미국이 금메달 39개로 1위, 중국이 금메달 34개로 2위에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3위는 금메달 27개의 프랑스, 4위는 금메달 17개의 영국이다.

5위부터 9위는 네덜란드(금16개), 호주(금15개), 일본(금13개), 이탈리아, 독일(이상 금11개) 순이다.

북한은 은메달 1개로 공동 79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빛고을 투혼, 파리에 태극기를”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소속 태극전사 5명에 격려 서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 개막을 사흘 앞둔 23일 마라지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나선 전운태 등 광주시 소속 선수단에게 응원 서한을 보냈다.

강 시장은 서한을 통해 “뜨거운 심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며 “파리에서의 합찬 비상을 광주시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광주시 소속으로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근대 5종, 펜싱, 유도, 스포츠 클라이밍 등 4개 종목 5명이다.

광주시청 소속 근대 5종 국가대표 전운태는 2023년 제19회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인과 단체전 1위, 2022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계주 및 혼성계주 1위, 2021년 제32회 도쿄올림픽 개인 3위를 기록해 파리올림픽 금메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올림픽 효과 증폭으로 꼽히는 펜싱에서도 서구청 소속 강영미·김재원 선수가 출전한다.

펜싱 국가대표 강영미는 2024년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신은철은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 연맹(IFSC) 서울 월드컵 대회 예선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성강 기자



광주시체육회, 복싱 우수선수 발굴·육성 선순환 구조 구축

우수선수 육성도장 인증 현판 수여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22일 광주시체육회 접견실에서 우수선수를 배출한 복싱종목 육성도장에 체육회가 인증하는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복싱 도장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선수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수 육성을 위해 노고 많은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우수선수 발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날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선수를 배출한 4개 도장에 현판을 수여했다. 1호 도장의 영예는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은메달 리스트(밴텀급 이만호)를 발

2024 파리 올림픽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7월 19일 현재						
사격	배드민턴	유도	근대5종	양궁	탁구	수영경영
역도	펜싱	태권도	수영	육상	배드민턴	수영
7/25 목	양궁 • 여자 개인형 리아르트(16:30) • 남자 개인형 리아르트(21:15)	펜싱 • 여자 에페 개인전 vs 한국(23:00)	7/27 수	개회식 • 각국 선수단, 베틀리노, 파리에 선진에서 6km 수상 행진(03:00)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남자-여자 복식, 혼합복식 조별 예선(15:30/21:00)	펜싱 • 여자 에페 개인전, 남자 사브르 개인(16:45-18:00)
29 일	양궁 • 여자 단체 경음(00:11) • 남자 단체 16강-동메달 결정전(16:30-)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남자-여자 복식, 혼합복식 조별 예선(02:30/15:30/21:00)	30 화	탁구 • 혼합복식 준결승(00:00)/결승(21:30) • 남자-여자 단식 32강(03:00/17:00)	양궁 • 남자-여자 단식 64강(03:00/17:00) • 여자 에페 개인전, 남자 사브르 개인(02:30/15:30/21:00)	수영경영 • 남자 200m 자유형 준결승(03:46)
31 수	양궁 • 남자-여자 단체 64강-32강 엘리미네이션 리아르트(00:45/19:00)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조별 예선(02:30) • 남자-여자 단식 조별 예선(02:30/15:30/21:00)	8/1 목	양궁 • 남자-여자 개인 64강-32강 엘리미네이션 리아르트(00:45/16:30/22:30)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조별 예선(02:30) • 혼합복식 8강(15:30/20:00) • 남자 복식 8강(15:30) • 남자 복식 8강(20:00)	수영경영 • 남자 4x200m 자유형 계영 결승(05:01)
2 금	탁구 • 남자-여자 단식 16강(03:00) • 여자 단식 8강(18:00/21:30) • 남자-여자 단식 16강(18:00/22:00)	펜싱 • 여자 에페 개인전 vs 스페인(18:00)	3 토	탁구 • 남자-여자 단식 8강(03:00/17:00/22:00) • 여자 단식 8강(18:00/22:00)	수영경영 • 남자 4x200m 자유형 계영 결음(05:01)	양궁 • 여자 에페 개인전 vs 스페인(18:00)
3 일	양궁 • 여자 단체 16강-동메달 결정전(16:30-)	배드민턴 • 남자-여자 단식 준결승(15:30) • 남자 복식 결승(22:00)	4 일	양궁 • 여자 에페 개인전 vs 스페인(18:00)	수영경영 • 남자 200m 자유형 준결승(03:46)	사격 • 여자 10m 공기소총 결음(16:30) • 남자 10m 공기소총 결음(19:00)
5 일	배드민턴 • 여자 단식 결음(16:45) • 남자 단식 결음(21:30)	탁구 • 남자-여자 단식 16강(17:00/22:00)	6 화	탁구 • 남자-여자 단식 16강(03:00/17:00) • 남자-여자 단식 8강(22:00)	수영경영 • 남자 200m 자유형 결음(03:40) • 남자 4x200m 자유형 계영 결음(18:00)	유도 • 남자 81kg 급 예선-결음(17:00-)
7 수	펜싱 • 여자 에페 개인전 vs 한국(18:00)	태권도 • 남자 81kg 급 예선-결음(17:00-)	8 목	태권도 • 남자 58kg 급 패자부활전-결음(02:40-) • 여자 57kg 급 16강-결음(16:09-)	양궁 • 남자-여자 단체 16강(17:00/22:00) • 여자 단체 준결음(03:00/17:00) • 남자 단체 준결음(22:00)	근대5종 • 남자-여자 개인형 리아르트(남 18:00/여 21:30)
9 금	태권도 • 남자 58kg 급 패자부활전-결음(02:40-) • 여자 57kg 급 예선-결음(16:00-)	역도 • 남자 73kg 급(02:30) • 여자 89kg 급(22:00)	9 목	태권도 • 남자 58kg 급 패자부활전-결음(02:40-) • 여자 57kg 급 예선-결음(16:00-)	수영경영 • 남자 200m 자유형 결음(03:40) • 여자 단식 결음(22:00)	탁구 • 남자-여자 단식 8강(03:00/17:00/22:00) • 여자 단식 결음(22:00)
10 토	근대5종 • 남자 준결음 B(00:00) • 여자 준결음 A(16:30)/B(20:30)	수영경영 • 남자 400m 자유형 결음(03:42) • 남자 200m 자유형 결음(19:00)	11 일	근대5종 • 남자 준결음 A(16:30)/B(20:30)	육상 높이뛰기 • 남자 결음(02:10)	태권도 • 여자 67kg 초과급 패자부활전-결음(02:40-)
11 일	근대5종 • 남자 준결음 A(16:30)/B(20:30)	육상 높이뛰기 • 남자 결음(02:10)	태권도 • 여자 67kg 초과급 패자부활전-결음(02:40-)	역도 • 여자 81kg 이상급(18:30)	역도 박해정	



목포해양대 조정팀. 왼쪽부터 김아름 감독, 박지성, 이성현, 김지현 학과장 <전남도체육회 제공>

목포해양대 박지성, 2관왕 '물살'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
목포해양대 조정팀 새내기 박지성이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조정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지성은 지난 21일 충남 예산호조 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중량급 싱글스컬에서 7분35초43의 기록으로 강민서(단국대, 8분0초48)와 최한석(부경대, 8분10초90)을 2초 이상 앞서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박지성은 이성현(1년)과 호흡을 맞춘 중량급 더블스컬에서도 7분14초14의 기록으로 인제대(7분18초50)와 부경대(7분55초51)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해양스포츠·레저융합학과 신선헌과에 첫 조정 특기생으로 입학한 박지성과 이성현은 지난 5월 첫 출전한 제66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더블스컬에서 첫 금메달을 합작한 이후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성현은 경량급 싱글스컬에 출전, 은메달을 보냈다. /박희중 기자